

석사학위논문

# 존 칼빈의 국가관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송 규 섭

2001년 6월

# 존 칼빈의 국가관 연구

지도교수 김 기 련

이 논문을 석사학위 연구논문으로 제출함

20001년 5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송규섭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2001년 6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 목차

I. 들어가는 말 .....	1
1. 연구동기와 목적 .....	1
2. 연구방법과 범위 .....	2
II. 칼빈의 국가관 .....	3
1. 국가관 이해의 배경 .....	3
1) 16세기 인문주의 .....	3
2) 제네바 시정 .....	7
2. 국가 통치의 기원과 임무 .....	10
1) 영적통치와 국가통치 .....	10
2) 정부의 주요 임무 .....	12
3) 집권자의 지위와 임무 .....	14
4) 다양한 정부 형태 .....	16
3. 국가와 법의 관계 .....	17
1) 국가와 법 .....	17
2) 법의 다양성과 통일성 .....	20
3) 법의 세 가지 용법 .....	22
4. 신민의 복종의 의무 .....	23
1) 공경 .....	23
2) 악한정부에 대한 징계 .....	26

5. 신민의 저항의 권리 .....	28
1) 복종의 한계와 저항의 당위성 .....	29
2) 저항의 합법적 책임자들 .....	30
3) 신민의 자유와 권리 .....	31
4) 하나님께 대한 복종 .....	32
<b>III. 교회와 국가간의 상호관계 .....</b>	<b>34</b>
1. 국가와 교회의 차이점과 공통점 .....	34
2. 로마 카톨릭과의 비교 .....	36
3. 루터파 교회와의 비교 .....	38
4. 은총론으로 이해 .....	39
<b>IV. 맺는 말 .....</b>	<b>41</b>
<b>참고문헌 .....</b>	<b>44</b>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동기와 목적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대립적인 입장이 항상 존재해왔다. 하나는 교회가 국가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종교적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정교분리적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가 항상 국가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의와 바른정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정치참여의 태도이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와 국가간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에 큰 쟁점이 되어왔다.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타락과 종교개혁, 독일 나치하에서의 고백교회 투쟁, 그리고 한국의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한 인권운동과 민주화 투쟁 등이 바로 그것이다.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경제파탄의 위기속에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교회는 앞장서서 정치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역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비판과 원성의 소리를 듣고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여와 분리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다변화되고 세분화되는 상황속에서 종교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일치하

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가 국가화 되어서도 안되며, 국가가 교회화 되어서도 안된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고 국가는 국가이어야 한다.<sup>1)</sup> 이런 관점에서 칼빈의 정치사상은 교회와 국가간의 문제가 제기될 때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17, 18 C 구미 시민혁명에 까지 영향을 주었던 칼빈의 국가관을 고찰하여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새롭고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필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실행한 칼빈의 국가관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논쟁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교회론보다는 국가론에 더 비중을 두어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칼빈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 4권 제 20장을 1차자료로 사용하여 인용또는 정리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들도 참고하였고 필요에 따라 주석과 논문도 참고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동기와 목적, 전개방법을 다루고 II장에서는 칼빈의 국가관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논술한 다음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한 후 오늘날의 시대상에 비추어 평가와 전망을 함으로써 본 논문의 끝을 맺고자 한다.

---

1)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3), 497.

## II. 칼빈의 국가관

### 1. 국가 이해의 배경

칼빈의 국가관에 대하여는 그의 저서와 더불어 시정과 교회활동을 지도한 그의 정치활동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다. 칼빈의 정치적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고 어느 신학자보다도 적극적이었으며 정치적인 행동을 사람들에게 권장하기도 했다. 사실 칼빈의 견해대로 종교적 동기에서 나온 국가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유럽 각국에 있어서 그 후의 칼빈주의 역사에서 잘 드러났으며 더 나아가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sup>2)</sup>

본장에서는 이러한 칼빈의 국가관을 형성케 한 16세기 사조와 그의 실천적 배경인 제네바 시정을 중심으로 칼빈의 국가관 형성의 배경을 살핀 후 그의 국가관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6세기는 서양문화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데 칼빈은 이 시기의 인문주의와 루터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 1) 16세기 인문주의

칼빈에게 있어서 인문주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칼빈의 정치적 관심이 그의 신학연구 이전에 이미 인문주의의 연구에서 그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주의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2)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298.



Orleans, Bourges 대학 등에서 헬라어, 문학, 법률학등을 공부하면서 깊어졌다. 또한 칼빈은 당시의 저명한 인문주의자들과의 폭넓은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sup>3)</sup>

칼빈의 인문주의 작품은 1532년에 출판된 *Commentary on the Declementia of Seneca* 였다. 칼빈은 이 작품에서 그의 해박한 지식과 스타일로 Valla, Erasmus, Bude 그리고 다른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완성된 인문주의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sup>4)</sup>

또한 이 작품이 그의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후대의 저술과 관계되는 것은 라틴어와 불어의 정확성과 더불어 간결하고 명확한 수사법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강렬한 도덕적 기풍과 자기훈련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세네카에게서 배운 도덕주의는 그의 인문주의자로서의 모험과 훗날 신학자로서의 발전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다.<sup>5)</sup>

그러나 칼빈의 젊은 시절의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은 단지 지적 갈증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 개혁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확신 위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최근의 학자들은 이러한 칼빈의 인문주의 수사학적 훈련이 그의 교훈을 전달하는 표현형식 뿐만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sup>6)</sup> 칼빈은 일반적으로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3) 홍치모, “Calvin과 Renaissance Humanism,” 「개혁신학」 3집 (1977), 85.

4)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Glasgow: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80), 27.

5) Basil Hall, *John Calvin: Humanist and Theologian* (London: The Hisistorical Association, 1965), 13.

6) 길리안 R. 에반스 외 2인, 「기독교 사상사」, 서영일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73.

지니는 이교적인 의미 때문에 이 단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으나 그가 ‘웅변’ 혹은 ‘달변’에 관하여 말할 때 바로 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수사학이 가지는 중요성은 신학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음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수사학은 보다 제한된 어원학이나 혹은 본문 분석등의 분야들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와 교육을 위한 언어의 통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칼빈에게 있어서 수사학이 과연 그를 이끌고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학을 위하여 사용된 하나의 도구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문주의가 훨씬 더 막대한 영향을 칼빈에게 미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하리슨(Harrison)에 의하면 루터를 전후한 시대에 교회개혁을 위한 네 가지 이론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신자 개개인의 개인적인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한 개인적인 차원의 개혁이요, 둘째는 총회(General council)에 의한 개혁, 셋째는 세상 통치자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넷째가 기독교 인문주의에 의한 개혁이었는데 칼빈은 당시 지성인들 사이에 팽배한 개혁의 방법으로서의 인문주의에 많은 공감과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sup>8)</sup>

틸리히(P. Tillich)는 칼빈의 인문주의적 경향을 루터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 사실에서 찾으려고 한다. 틸리히에 의하면 루터는 국가에게 악을 억제하고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지키는 권리만을 인정했으나 칼빈은 선한 통치란 죄를 억압하기 위해서 뿐만

7) 위의 책, 174.

8) E. Harris Harrison, *The age Refomaition* (New York: Conell university press, 1955), 41-46.

아니라 그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인문주의적인 국가이념을 선포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무엇보다도 칼빈의 인문주의적 영향은 그의 국가이해의 현장인 제네바 시정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는데 바질 홀(Basil Hall)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의 인문주의는 제네바를 신학을 비롯한 학문연구와 새로운 시민의 이상이 실천되는 중심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칼빈의 인문주의적 방법은 그의 성서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성서를 사색, 예증, 불확실한 지식으로 부터가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끌어내어 연구하였다. 셋째, 제네바시의 인쇄업이 발전하여 칼빈 자신의 책뿐 아니라 개혁가들의 책들을 계속 출판하게 된 것은 그의 인문주의 영향의 결과였다. 넷째, 제네바 대학 등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교육을 개혁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이는 칼빈의 인문주의 사상의 열매라고 할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인문주의가 칼빈의 모든 신학 특히 국가관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칼빈은 회심을 전후하여 인문주의 사상과 종교개혁 사상 사이의 심각한 차이들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면서 그의 동료 인문주의자들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기 때문이다.<sup>11)</sup> 결국 칼빈의 인문주의적 사상은 회심 이후 갈수록 강하게 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틀 속에 용해되어 칼빈의 사상속에 한 요소로만 작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9) Pal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Simon & Schuster, 1968), 273.

10) Basil Hall, *John Calvin: Humanist and Theologian*, 32-33.

11) 길리안 R. 에반스 외 2인, 「기독교사상사」, 176-179.

## 2) 제네바의 시정(市政)

칼빈의 제네바 시정은 칼빈의 국가이해의 시범을 보여준 최초의 현장이었다. 칼빈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이상들은 그 출발로부터 제네바의 특수한 정황이 아니었더라면 성취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사실상 칼빈의 신학체제도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기 보다는 제네바의 선교적 현장에서 전개된 것이며 기독교 강요도 이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었다. 제네바 시의 이런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분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헌법은 칼빈이 개혁적 시정을 펴는데 가장 적합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sup>12)</sup>

1541년 9월 13일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와 제네바 시정의 개혁에 앞장서게 된다.<sup>13)</sup> 제네바 시정의 첫 구조적 작업은 1541년 “제네바 교회 헌법”(Les Ordonances Ecclesiastiques de L'Eglise de Geneve)이 발표됨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의 구체적인 실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찰회가 조직되었다. 이 회의 구성은 소의회에서 2인, 60인 의회에서 4인, 200인 회의에서 6인, 목사회에서 12인, 도합 2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시의회의 최고 이사가 맡게 되었다.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 여러 대소간의 의회가 있었는데, 최고의 부서는 소의회(Little Council) 혹은 25인회가 있었으며 200인회(Council of hundred)는 소의회의 선출로 임명되었다. 그 중간에 60인회(Council of Sixty)가 있었는데 이들은 동시에 200인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0인회와 소의회는 대부분이 행정에 참여하는 가장 많

12) B.K. 카이퍼, 「세계기독교회사」, 김해연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239.

13) 위의 책, 238-239.

이 언급되던 의회이다.<sup>14)</sup>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소의회에 상소되고 다음에 200인회로 넘어간다. 60인회는 예비적인 토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중요한 사건은 총회(General council)에서 결정하는데 총회는 1년에 한번씩 열려 비밀 투표에 의해 부유층 2인, 빈민층 2인, 네 명의 참의(Syndics)를 선출한다. 참의의 임기는 2년으로 그들의 권한은 매우 커서 전체적인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sup>15)</sup>

교회의 조직은 1541년 총회에서 채택한 “교회규칙”(Church Order)에 따라 목사, 교사, 장로에 이어 집사 등의 직분으로 이루어졌다.<sup>16)</sup> 칼빈은 엡 4:11, 롬 12:7-8에 나타난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등의 직임을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인 직임으로써 사도와 복음전하는 자는 목사에 해당하며 예언자는 교사에 해당된다. 또한 롬 12:7-8, 고전 12:28에 나타난 권세, 치료, 해석, 통치, 불쌍한 자를 돌보는 직책들 중에는 통치와 불쌍한 자를 돌보는 직임이 영구적인데 이것이 바로 장로와 집사의 직임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장로의 협조로 회중을 치리한다. 교사는 목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점은 권징, 성례집행, 훈계권은 없고 오직 성서해석에만 전무한다는 점이다. 장로는 백성들로부터 선출되어 도덕에 대한 책망과 권징의 실행을 맡은 사람이다. 집사는 장로와 동일한 절차로 선출되고 교회의 회계를 맡아보고 병든 자와

---

14) J.T.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d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133-135.

15) 이상훈, “루터와 칼빈의 국가관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2), 33-34.

16) B.K. 카이퍼, 「세계기독교회사」, 239.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을 맡는다. 제네바 시정의 이러한 구조는 중세의 수도원과 탁발승 제도로부터 암시된 것이지만 칼빈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신학적 근거 위에서 독특하게 구성되어졌다.<sup>17)</sup>

제네바시의 이 구조는 훗날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에서 매우 흡사하게 재현되었지만 칼빈의 제네바 시정의 구조는 누구도 재현시킬 수 없는 지극히 독특한 것이었다. 칼빈의 제네바 시정을 그의 정치적 관심, 즉 국가이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칼빈의 국가관은 교회의 존재와 그 소명과 무관하게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서로 무관할 수 없다는데서 멈추지 않고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긴밀한 일원론적 유대관계로 통합한다. 국가와 교회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실현, 혹은 거룩한 공동체의 수립이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회복이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잘되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고 명령하고 착취하는 대립적 기관이 아니라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관심하고 협력한다.<sup>18)</sup>

제네바 시정에서 이 양자의 중간에 선 것이 감찰회이며 특히 그것의 핵심이 장로의 역할이다. 장로는 교회내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생활도 돌아보는 위치에 선다. 말하자면 장로가 교회와 정치의 매개체로 역할을 한 것이다.<sup>19)</sup> 장로가 감찰회의 위원이 되어 교회헌법과 규칙이 잘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살피는 중간적 위치에 섬으로써 정치는 교회로부터, 교회는 정치로부터 상호 독립하면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

17)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154.

18)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502.

19) 이종성, 「칼빈」, 43.

치가 되었다.

칼빈의 제네바 시정(市政)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신정적(神政的)이거나 전체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닌 대의적(代議的)인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다는 점이다. 제네바 시정(市政)은 엄격한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적인 모습의 대의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의적(representative)인 구조와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목사의 부름은 교인들의 동의와 찬성이 있게 될 때 합법적으로 간주되었다. 장로와 집사도 백성들로부터 선출되었다.<sup>20)</sup>

칼빈의 제네바 시정(市政)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 적이 없고 소수의 성직자가 국가를 지배한 적도 없었다. 더구나 국가를 교회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칼빈의 의도는 교회나 국가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둘 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지배당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21)</sup>

## 2. 국가 통치의 기원과 임무

### 1) 영적통치와 국가통치

칼빈의 국가 이해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설립하고 정부와 관헌을 인정하며 추천하셨다는 사상 즉,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거룩한 신적 제정에 기초한다.<sup>22)</sup>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20)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77-278.

21)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24-225.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함을 분명히 하였다.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폐악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사를 처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이 법을 제정하며 재판소에서 공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sup>23)</sup>

또한 칼빈은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소명이며, 단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고도 말했다.<sup>24)</sup> 한편 칼빈은 국가의 기원과 통치가 필요하게 된 것은 타락 이후 인간이 근본적인 죄악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25)</sup>

그러므로 칼빈의 국가 이해의 핵심은 인간이 이중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중의 통치라 함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속적으로는 국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칼빈이 이러한 이중통치를 주장하게 된 원인은 칼빈 당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마키아벨리와 재세례파 사람들 때문이었다.

---

22) 위의 책, 225.

2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편집부역 (서울: 기독교 성문출판사, 1990), 965. 이 책은 이하 Inst로 표기한다.

24) Inst, IV, 20, 4.

25) Inst, IV, 20, 2.

26) Inst, IV, 20, 1.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라는 제도를 전복시키려고 했거나 반대로 군주의 세력을 지나치게 과장시켰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sup>27)</sup>

## 2) 정부의 주요 임무

칼빈은 정부가 정당한 정치활동을 통해 순수한 복음설교와 봉사(예배)를 맡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정치적 질서의 유용성이 빵이나 물, 태양이나 공기의 유용성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주요 임무를 이렇게 강조하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과 그 밖의 종교에 대한 방해가 사람들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일어나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공공의 평화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으며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온전히 보전하며, 또한 시민들이 선한 교제를 하게 하며 그들 사이에 정직과 겸양의 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마디로 기독교인들이 거리낌없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세상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sup>28)</sup>

이처럼 사법적, 사회적, 종교적 기능을 부여 받은 정부의 정치활동은 시민들이 삶(生)을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한편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종교

---

27) Inst, IV, 20, 2.

28) Inst, IV, 20, 3.

의 공적 형식인 예배가 존재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sup>29)</sup>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정치활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치활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국가의 평화는 위협을 받게 되고 공적 예배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잘 발휘된 정부의 정치활동은 기독교 사회가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세상 정부의 임무란 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보호하며 순수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리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하여 평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30)</sup>

또한 칼빈은 국가 통치의 목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통치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칼빈의 주장들은 그가 주로 활약한 제네바 시를 통해 실제로 구체화 되었다. 제네바 시와 교회는 서로 협력하면서 시민의 자유는 교회가 보장해 주고 교회의 신앙 수호와 질서 유지는 정부가 지켜주었다. 그래서 칼빈의 슬하에서 신학을 배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John Knox)는 말하기를 “제네바는 사도시대 이래 땅 위에 있는 것 중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였으며 제네바 거

29) 휴 톰슨 커 편, 「기독교 강요선」, 259.

30) 위의 책, 226.

31) Inst, IV, 20, 2.

리는 눈에 띄이게 행악자가 없어졌다”고 고백했다.<sup>32)</sup>

칼빈주의 신학자 용옌은 국가의 종교적 태도와 직무에 관하여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가는 종교적으로 중립화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독립적(self-contained) 기구로 나타나서도 안 된다. 오직 국가는 인간 사회를 함께 지탱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특수한 왕국으로서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 주는 필수적이며, 신적으로 제정된 유기체로서 나타나야 한다.<sup>33)</sup>

한편 칼빈은 정부가 종교를 바로 세우는 임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진정한 교회에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는 정부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에서 잘 알 수 있다.<sup>34)</sup>

### 3) 집권자의 지위와 임무

칼빈은 집권자의 지위와 임무에 대하여 말하기를 집권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과업을 위탁 받아서 대리 집행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하였다.<sup>35)</sup> 그러므로 집권자는 하나님의

32) 전경연, “칼빈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조향록 편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219.

33) 크리스토프 용옌,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10.

34) Inst, IV, 20, 3.

35) Inst, IV, 20, 4.

공의를 실현하는 일꾼으로 임명되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36)</sup> 스스로 이런 의식을 가진 집권자야말로 고결함과 슬기와 온유와 극기와 결백을 향한 열정이 생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집권자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열성과 근면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7)</sup> 반대로 칼빈은 집권자들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로운 소명을 받고도 거짓 되게 행동하는 자는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집권자의 지위와 임무를 명확히 밝혀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들을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칼빈에 의하면 무정부주의자들처럼 정부 집권자의 통치에 대항하여 고대의 노예통치와 같다고 불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무지와 교만의 행동이라는 것이다.<sup>38)</sup>

또한 칼빈은 집권자들이 온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막고 또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차단하는 직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칼빈은 집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9)</sup>

한편 칼빈은 집권자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인 전쟁 수행권을 합법적으로 정당화 시켰다. 칼빈에 의하면 집권자들은 공정한 처벌로 개인들의 비행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아 지키는 영토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전쟁으로 방어하기 위해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0)</sup>

---

36) Inst, IV, 20, 6.

37) Inst, IV, 20, 6.

38) Inst, IV, 20, 5.

39) Inst, IV, 20, 8.

칼빈주의 신학자 율엔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사신들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함을 역시 칼빈의 주석서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왕이나 그들이 세우는 법령들에 있어서 신중함과 공정성이 선행되기만 한다면 불변성(constancy)이란 칭찬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위정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하에 있는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리의 보호자요, 수호자이기 때문이다.”<sup>41)</sup>

한편 칼빈은 국민들이 위정자의 배려와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위성 때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sup>42)</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자로서의 의무와 정직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의 지위와 임무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3)</sup>

#### 4) 다양한 정부 형태

칼빈은 정부의 조직을 논하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정부형태의 우열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왕정(王政)이 아닌 귀족정치와 민주정치를 결합한 제도를 권장하였다.<sup>44)</sup> 그 이유는 항상 공정하고 언제나 정의로운 판단력을 가

40) Inst, IV, 20, 11.

41) 크리스토프 율엔,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51-52.

42) Inst, IV, 20, 7.

43) Inst, IV, 20, 10.

44) Inst, IV, 20, 8.

진 왕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 한사람의 판단력에 의존하는 왕정보다 여러 사람이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민주적 귀족정치를 선호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민주적 귀족정치의 장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이 불공평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 여러 사람이 그 고집을 비난하여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자유가 적절하게 제한 받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 바르게 세우는 정치제도가 가장 좋다고 인정하며, 이런 상태를 누리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한 가지의 정부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마다 각각 그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정부 형태에 의하여 통치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롭게 배정하셨다고 주장하였다.<sup>45)</sup>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사람에게 공손히 복종하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3. 국가와 법의 관계

#### 1) 국가와 법

입헌주의 국가에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법이다. 마르틴 루터는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나 칼빈은 국가가 그 스스로의 권한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무관하게 독립할

---

45) Inst, IV, 20, 8.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자연법 개념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루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sup>46)</sup>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좁은 의미의 법을 비롯하여 넓은 의미의 규율과 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이 없이는 사회의 올바른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법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지켜가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도 완전하거나 불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므로 이 세상의 법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기독교 강요」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의식적 율법과 재판적 율법을 포함한 것이 바로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였다.<sup>47)</sup> 도덕적 율법은 두 개의 주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순수한 신앙과 경건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둘째, 모든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sup>48)</sup> 이것은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원리요 원칙인 것이다.

국가 조직에 있어서 집권자 다음으로 없어서 아니될 것은 법률이다. 그것은 공공의 질서를 위한 최강의 힘을 지닌다. 키케로는 법률을 「나라의 정신」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없이는 집권자도 존재하지 못하며 또한 집권자 없이는 법률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였

46)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300.

47) Inst, IV, 20, 14.

48) Inst, IV, 20, 15.

다. 따라서 법률이란 무언의 집권자이며 집권자는 살아있는 법률이라고 하였다.<sup>49)</sup>

국가가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가 백성을 통치하는데 일정한 규범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규범이 곧 법률인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새겨주신 내적인 법(롬 1:22-22, 2:14-15)을 설명하면서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 즉 그의 영원성, 능력, 선성, 진리, 의, 자비 등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셨으므로 이방인들도 이런 신성한 자연적인 도덕심의 내재성을 거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지시자 없이 이 내재적 도덕법, 곧 자연법을 반영한 법률들을 생각해 내었다는 것이다.

이 도덕법 곧 자연법이 이방 불신국가의 법률에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은 전연 허망한 것들이 아니며 따라서 이 법을 토대로 한 정치가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자연법을 본질상 평등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성문법상의 어떤 법적 평등을 말하기보다는 공통적 정의를 말하며, 그것은 법의 제한을 말하기보다는 자연법처럼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말한다.<sup>50)</sup>

루터는 국가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칼빈은 일보 전진하여 국가가 그 자체의 권한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에 완전히 예속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칼빈의 자연법 개념

---

49) Inst, IV, 20, 14.

50)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300.



은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 루터보다 한 걸음 진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51)</sup>

## 2) 법의 다양성과 통일성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그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어떤 강제권능에 의한 효력이 확보된 규범의 체계이다. 넓은 의미의 법 개념은 법률, 명령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관습을 포함하나 좁은 뜻의 법은 내면적, 개인적, 비강제적인 도덕을 제외하고 외면성, 사회성 및 특히 강제 가능성을 갖춘 사회통제를 위한 규범을 뜻한다. 즉 도덕이 최후의 초점을 개인의 내면적 양심에 구하는 데 반하여 법은 사회의 요구에 대한 복종을 제일로 하며 준수하지 않는 위반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적 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없이는 국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적인 안녕과 질서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사랑이라는 영원한 표준에 일치하는 법칙이라야 한다는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sup>52)</sup>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법조문들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적 인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근대국가의 통일적 권위와 그 권력장치로 뒷받침된 근대법은 법의 '법적 성격'을 가장 선명히 드

51) 위의 책, 301-303.

52) Inst, IV, 20, 15.

러내고 있다. 즉, 근대에 이르러 법은 도덕, 종교, 관습등의 다른 여러 규범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의 존재 영역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은 도덕이 선을 지상의 가치로 삼는 데 비하여 무엇보다도 정의의 실현과 사회질서를 목표로 한다. 물론 이 같은 법을 어기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법은 강제기능을 발동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의 법 자체의 부족과 불완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법을 준수할 때 그 사회는 참으로 안정되고 질서 정연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내적 영역에 힘을 미치어 그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법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아무런 속박력을 지니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입법자이시며 그의 계명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울러 자유롭게 다스리신다.

사도 바울이 양심 때문에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롬 13:5)고 했지만 그것은 칼빈에 의하면 국민은 다만 군주나 통치자가 무서워서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53)</sup> 국민이 집권자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통치자들을 충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들에 대한 복종을 증명해야하며 그들의 포고에 순종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공직과 방위임무를 맡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복종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

53) Inst, IV, 20, 22.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모든 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모범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사랑의 법칙인 것이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국가에서 제정되는 법이 각 민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이 규정하는 사랑의 영속적 규범을 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칼빈은 이러한 표준에 따라서 구성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 한계를 지키는 법이라면 그런 법이 유대인의 법이나 우리의 법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배척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sup>54)</sup>

### 3) 법의 세 가지 용법

율법의 용법의 개념문제에 있어서 본 회퍼는 세 가지 용법을 말하면서 그것은 슈말칼텐 신조와도 일치한다고 했다.<sup>56)</sup> 본 회퍼의 주장에 의하면 율법은 의롭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이 그 본성과 생각, 말과 행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용납하시며, 범법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현세와 영원까지 징벌 아래 서게 된다는 견해이다.<sup>57)</sup>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국가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어떤 종류의 법이 과연 최선의 것인가? 어떤 법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운영되며 또한 인간들 사이에 정당하게 시행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였다.<sup>58)</sup> 칼빈은 모세에 의하여 공

54) Inst, IV, 20, 23.

55) Inst, IV, 20, 16.

56) Dietrich Bonhoeffer, *Ethics* (London: SMC press Ltd, 1955), 271.

57) 위의 책, 272.

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첫째 도덕적 율법, 둘째 의식적 율법, 셋째 재판적 율법으로 삼분하였으며 동시에 의식적 율법과 재판적 율법이 도덕적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도덕에 관한 율법은 변동이 없는 데 비하여 다른 두 가지는 변하거나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8)</sup>

#### 4. 신민의 복종의 의무

##### 1) 공경

존 칼빈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요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인 정부 통치자에게 국민은 존경과 애정을 표하고 애국충정으로 협력하며 납세와 병역의무를 다하고 그 직무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하여 형벌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신앙 양심상 기쁨으로 순종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60)</sup> 이와 같은 순종은 부당한 지배자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칼빈은 집권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권자들에 대해서 인류를 위한 어떤 종류의 필요악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재세례파의 이러한 견해는 이미 쾰른에 의하여 반박 되어졌다. 그리고

58) Inst, IV, 20, 16.

59) Inst, IV, 20, 15.

60) Inst, IV, 20, 22.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존경하라”고 하는 말로 진지하고 성실한 공경을 가르친 바 있다.(벧전 2:17) 솔로몬도 왕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왕에게는 어떤 종류의 거룩한 위력과 존엄이 가득 차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또 어쩔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한다.<sup>61)</sup>

집권자에 대한 칼빈의 복종명령은 오늘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더욱 확신있게 이렇게 주장하였다. “나는 집권자들의 인물을 논하지 않는다. 우매나 나태나 잔인성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행실을 위선으로 은폐하거나 악을 덕이라고 칭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집권자의 지위자체는 영예와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집권자들을 높이며 그들의 지위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도 공경해야 한다.”<sup>62)</sup>

심지어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갈취와 강도행위와 학살을 일삼는 악한 공직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악한 지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sup>63)</sup>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니엘 4:17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이 왕국을 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에스겔

---

61) Inst, IV, 20, 6.

62) Inst, IV, 20, 22.

63) Inst, IV, 20, 25.

29:19-20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왕에게 이스라엘과 애굽을 넘겨 주었다고 하였다. 또 예레미야 29:7에서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폭군들이라도 국민들은 이들의 명령과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sup>64)</sup>

칼빈의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권위는 독재나 압제가 아니며 위임된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러므로 통치 지배권(왕권신수설)을 무제한의 절대적이고 최종적 권위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행위가 극히 흉악하고 잔인할찌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분인 이상 폭군이요 복음의 원수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기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sup>65)</sup>

칼빈주의 신학자 용엔도 칼빈의 주석서 및 전집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의거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통치자들이 확실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의 적이 될 수는 있을찌라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무는 그 직무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악함이나 불성실에 의해서 결코 말살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다. 복종의 문제에 관한 한,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기대들을 살리든지 말든지 또 그들이 성경적 원리로 통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심지어는 그들이 백성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설사 이상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백성들은 잠잠한 슬픔 속에서 그것들을 탄식해야 할 뿐이다. 비록 이것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선동적이고 방종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

64) Inst, IV, 20, 24.

65) Inst, IV, 20, 26.

또 정부를 뒤엎어서는 안 된다.”<sup>66)</sup>

오직 하나님만이 집권자들을 임명하시고 파멸시킬 능력을 가지신다고 주장하였던 칼빈은 그의 전(全) 생애 동안 자신의 이 원리에 충실했다. 프랑스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수 많은 서신들은 그들에게 거듭거듭 복종과 인내를 요구했다. 칼빈은 이런 인내와 무력함이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더 큰 박해와 고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고함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가 경건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고난이라도 당할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종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섭하기까지 시민 개인으로서 우리는 폭군에게 복종을 해야하며 겸손함으로 눈물과 기도로써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sup>67)</sup> 이러한 주장은 숙명적 굴복이 아닌 만큼 시민 개인의 계획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 2) 악한 정부에 대한 정계

칼빈은 불공정과 불의를 자행하는 악한 정부에 대하여 시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계의 채찍으로 알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겸손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섭리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68)</sup> 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악한 임금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남의 재산을 빼앗는 약탈자와

---

66) 크리스토프 욥엔,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73-79.

67) 위의 책, 93-97.

68) Inst, IV, 20, 24.

남의 가정을 더럽히는 간음과 우리를 죽이려는 살인자의 경우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sup>69)</sup>

광포한 전제군주인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만큼 그를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지자들(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한 봉사의 댓가로서 애굽 나라를 주리하고 확언하게 하셨다.(겔 29:19f) 또 다니엘도 말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나이다”(단 2:37f). 또 예레미야도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 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벌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렘 27:5-8, 27:17)고 선포하였다.<sup>70)</sup>

하나님께서 심히 광포한 이 전제군주에게 분명한 복종을 바칠 것을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왕국을 장악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여 왕위에 오르고 왕의 위엄을 받은 것으로서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집을 떠나 포로가 되어 끌려 가서 비참한 노예상태가 되어 있

---

69) Inst, IV, 20, 25.

70) Inst, IV, 20, 27.



으면서도 정복자를 위하여 번영을 빌라고 명령을 받는 것이다. 이 정복자의 왕국이 안전과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그 왕국 안에서 그들도 함께 번영하기 위함이었다.<sup>71)</sup>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 의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셨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왕들의 방종한 욕망이 탈선하여 비정상적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는 일은 당신들의 임무는 아니다.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의 명령을 받아 들어서 그의 포고를 듣는 일 뿐인 것이다.”<sup>72)</sup> 그러므로 권리를 옹호하는 일은 백성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임을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악한 군주에 의하여 잔인하게 괴로움을 당한다면 또 만일 탐욕하거나 사치한 군주에 의하여 수탈을 당한다면 또 만일 나태한 군주에 의하여 무시 당한다면 또 만일 마침내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군주에 의하여 경건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비행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의심할 바 없이 주의 채찍에 의하여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다.”<sup>73)</sup>

이 때야 비로소 우리의 불안과 초조를 억제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병폐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니며 오직 왕들의 마음과 왕국들을 그의 손 안에 지배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일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sup>74)</sup>

---

71) Inst, IV, 20, 28.

72) Inst, IV, 20, 31.

73) Inst, IV, 20, 25.

74) Inst, IV, 20, 29.

## 5. 신민의 저항의 권리

### 1) 복종의 한계와 저항의 당위성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부지중의 대행자에 의해 실행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권능과 섭리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때로 종들 가운데서 복수자를 일으키시어 사악한 지배에 형벌을 내리시고 부정된 압박을 받는 백성들을 비참한 재앙 아래서 구출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며, 또 때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가진 자의 광포를 인도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의의 일꾼 또는 집행자였다.<sup>75)</sup>

용옴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침해당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금지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복종의 한계와 저항의 당위성에 대해 칼빈의 행 17:7 주석과 단 6:22 주석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복종의 한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 마땅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러져야 할 공경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전제적 명령이 국민들에게 지시된다면 그 명령을 준행하지 말라. 또 이 명령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요청된다면, 그때에는 왕의 위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상의 군주들이 하나님께 반항할 때에 그들은 그 권력을 스스로 버

---

75) Inst, IV, 20, 30.

렸으며 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도 상실한 것이다.<sup>76)</sup>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왕들이 너무 난폭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탈취하려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 내리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sup>77)</sup>

## 2) 저항의 합법적 책임자들

칼빈은 3부회(3계급 회의) 등의 합법적 책임자들을 통하여 저항할 권리가 신민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개회 중의 삼부회는 더 이상 단순한 신민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과 백성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소명이며 의무인 “백성의 위정자들”(popular esmagistratus)로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한다. 여기서는 백성이 아닌 법률이 최고의 권위이며, 따라서 삼부회는 백성의 대표자라기 보다는 백성의 수호자요 그들 권리의 수호자이다.<sup>78)</sup>

그러므로 칼빈은 국민의 관리들이 그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 폭군적 부패에 항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감독관, 호민관, 지방장관, 길드(guild),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백성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칼빈은 합법적인 관원들이 백성의 이익과 지속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시인하고 격려하며 엄숙하게 강조한다.<sup>79)</sup> 프랑스에서는 삼부회(3계급 회의)를 소집하라는 것이 신

76) Inst, IV, 20, 32.

77) Inst, IV, 20, 32.

78) Inst, IV, 20, 30.

79) Inst, IV, 20, 31.

교도 위그노들의 정치적 저술의 특징이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존 나스가 막테부르크(Magdeburg) 신앙고백 즉, 1550년에 루터파가 찰스 5세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무장항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발표한 마르부르크(Marburg) 변호를 인용하였으며, 그의 동료 목사 존 크레이크 (John Craig)은 볼로냐의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1554년에 교황에 대하여 항거한 것을 변호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신민에 대하여 서약한 약속을 어기는 통치자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개심하거나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하였다.<sup>80)</sup> 같은 관점에서 후기의 베자(Beza)도 “국민과의 사회적 계약을 어기는 폭군을 고위 당직자가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sup>81)</sup> 옛날 로마(Roma)의 호민관(tribune), 스파르타(Sparta)의 민선 집행관, 아테네(Athens)의 지방장관 그리고 현대의 대의기관이나 귀족, 승려, 평민등 신분 대표회의와 같은 합법적 대표들은 헌법적 저항으로써 외국 통치자들의 간섭권 대하여 대항하여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확보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폭행이나 민중 반란에 의한 반항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만 합법적 대표들이 군주의 난폭과 잔인한 횡포를 간과함은 자기 직책에 대한 불성실이요, 기만적이고 사악한 배반이다.<sup>82)</sup>

### 3) 신민의 자유와 권리

칼빈은 신민의 자유와 특권에는 몇 가지가 있으니 정당한 권리

80) 위의 책, 631-632.

81)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57.

82) 빌헬름 니이젤, 「칼빈주의 신학」, 240.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고유하고 독특한 원리와 임무를 갖고 특수 활동분야에 관계된 유기적 통일체인 사회의 모든 전문분야의 자주권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활동환경과 물질적 복리를 제공받을 권리와 정신적인 영혼과 양심의 자유권이라고 했다.<sup>83)</sup>

이것들이 방종이나 무정부적 혼란과 전혀 다름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치적 자유를 추진하는 요인들은 자연권설(자연법 사상, 내적도덕법)에도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전 인류 타락, 선택 교리 권위의 기초에 입각한 것이다. “참 자유는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어거스틴(Augustine)의 말도 있거니와 영원한 원리 즉, 하나님 은혜 통치 진리를 왕에게 보여줌으로써 견제하는 것이다.<sup>84)</sup>

#### 4) 하나님께 대한 복종

또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군주에 대한 복종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군주에게 복종하는 한계(예외)가 있으니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主)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봉헌을 금지당할때엔 조국에서 추방될지언정 군주에게 맹종할 수 없다.<sup>85)</sup>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칼빈은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실례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배자에 대한 복종은 정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들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83) Inst, IV, 20, 31.

84) 김남식, 「칼빈주의 연구」, 77-78.

85) Inst, IV, 20, 32.

그러나 지배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는 것은 안 된다. 오직 주 안에서만 지배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만일 지배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무엇인가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 이때 우리는 관현이 가지고 있는 위엄에 조금도 얽매어서는 안 된다.<sup>86)</sup>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치 않았을 때 조금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단 6:22) 왜냐하면 이 왕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 단지 인간에 대하여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뿔을 세워서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불경건한 포고에 지나치게 순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죄되고 있다.(호 5:13) 즉,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새로운 미신으로 그것을 행했던 것이다.(왕상 12:3) 이상 말한 것을 굳게 지키려할 때 어떠한 위험이 다가오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절개를 지키는 데에는 어떤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에서 떠나는 일 없이 오히려 어떤 고통을 참는다면 그때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sup>87)</sup>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전쟁문제는 외관상으로 모순된 듯 하지만 이것은 개인 윤리가 아닌 사회윤리이므로 국제정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전쟁은 정당하며 교전 중의 인도적 행동과 교전 후의 평화적 결말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인은 사전에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성경에 계시된 도덕법칙에 표준하여 신앙

---

86) Inst, IV, 20, 31.

87) Inst, IV, 20, 32.

양심에 순종해서 정당한 전쟁에 출전할 의무도 있다.<sup>88)</sup>

칼빈은 재세례파의 평화주의에 맞서고 있으며 동란 혹은 침략에 의해 야기되는 폭동으로부터 백성을 방어할 필요성으로 통치자에 의한 전쟁 수행에 대하여 간결한 이론을 제공했다. 집권자들의 사리사욕과 권력 남용에서가 아니라 신민을 옹호하고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전쟁이 허용됨을 그는 강조하였다.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의 평안과 모든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나 선동하는 자나 또는 남을 폭압하여 학대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 권력을 적합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아 지키는 영토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전쟁으로 방어해야 한다. 성령께서도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선언하신다.<sup>89)</sup>

또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느 경우에도 집권자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오직 공적인 견해에 인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최악의 방법으로 남용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전쟁을 하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비대와 동맹관계와 기타 민간 방위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90)</sup>

### Ⅲ. 교회와 국가와의 상호관계

88) 미이터 헨리, 「칼빈주의」, 186-194.

89) Inst, IV, 20, 11.

90) Inst, IV, 20, 12.

## 1. 국가와 교회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칼빈은 교회와 국가는 그 임무와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다같이 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하였다.<sup>91)</sup> 한편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데 반해 국가의 역할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올바른 교리와 예배가 유지되도록 방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신자들과 연결시키며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sup>92)</sup>

또한 칼빈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특별한총의 범주에 속하며 국가는 일반은총의 범주에 속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국가의 공직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였다.<sup>93)</sup>

이러한 칼빈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교회와 국가를 분명히 구분지 으면서도 양자를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표현으로 양자를 통일시킨다. 칼빈은 또한 양자를 서로 분리시켰는데 이것은 두 기관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역할에 있어서 분리가 가능한 것이다.<sup>94)</sup>

국가에서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역시 교회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가법에 의한 최고

91) Inst, IV, 20, 1.

92)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501.

93) 위의 책, 503.

94) Inst, IV, 20, 2.



형은 사형이지만 교회에서는 출교를 명한다. 이것은 출교를 당한자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즉, 그가 양심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복음적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국가의 법 아래서 살지만 동시에 교회법의 저축을 받고 있는 것이다.<sup>95)</sup>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허락된 영적인 고상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는 항상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제약하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적인 자유와 정치적 노예가 양립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주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고전 7:22), 자유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악한 사람이 부당히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법을 어기면 그는 이중적으로 노예가 되지만 신령한 법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으면 그는 영적으로는 자유자인 것이다. 칼빈 당시 재세례에 속한 자들이 현존하는 국가와 사회의 법과제도를 파괴하여야 비로소 새로운 도성이 임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를 오히려 국가와 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이므로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sup>96)</sup>

## 2. 로마 카톨릭과의 비교

95) Inst, IV, 20, 1.

96) Inst, IV, 20, 2.

이 장에서는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카톨릭 신학자 니이브(J. L. Neve)는 칼빈이 국가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강조하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국가에 대해 우위에 서는 입장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말하기를 “칼빈에 의하면 국가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국가의 원리에 근거해서 해결할 수 없는 반면에 교회의 교직자들은 종교와 도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심판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는 통치자요 그러한 통치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한 국민은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점이 용인되긴 했으나 여전히 교회는 종교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97)</sup>

그러나 니이브의 이 말이 칼빈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함으로써 교회의 체제는 중세의 카톨릭의 그것으로 후퇴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 것이라면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칼빈에 의하면 어떠한 왕도 교회의 대리자는 아니다. 그는 백성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칼빈의 국가관이 중세적 질서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점이다. 칼빈의 교회관을 볼 때 종교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세 카톨릭에서처럼 교회통치적 정체나 성직자 정체의 성격은 결코 아니었다. 칼빈에게서의 교회와 국가는 상호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공동기원과 하나님에게만의 공동피지배 관계에 있게됨을 발견하게 된다.<sup>98)</sup>

97) 존 맥닐, “칼빈과 국가통치,”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347-348.

98) Inst, IV, 20, 2.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전적인 공식인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며 자연을 전제하고 그것을 완성한다”는 명제에 함축된 진정한 의미는 카톨릭 교회가 전 인간 사회를 인간의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국가를 피지배 대상으로 내몰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이점이 칼빈의 교회관과 카톨릭교회의 차이점이다.<sup>99)</sup>

### 3. 루터파 교회와의 비교

칼빈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 이해는 루터와 비교해 볼 때도 명료하게 그 성격이 드러난다. 티리케(H. Thielicke)는 칼빈이나 루터가 그리스도가 교회와 국가를 동시에 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일치점을 보인다고 하였다.<sup>100)</sup>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그것들이 갖는 기능의 차이라는 차원에서의 소극적 분리 이상을 의미한다.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와 세계의 관계는 루터와는 달리 완전히 직접적이고 한층 더 적극적이다.<sup>101)</sup>

칼빈이 주장하는 국가의 진정한 임무는 종교의 “공공적 구현”(publicafacies)이 교회안에서뿐 아니라 크리스찬들 사이에 존재하게 하고 또한 인간성이 그들 사이에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교회와 국가는 필연적으로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리

99) Inst, IV, 20, 3.

100)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518-520.

101) 위의 책, 518.

하여 그리스도왕국의 구현이라는 공동목표를 구체적인 상호책임을 통해 이루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겹쳐진 두 개의 합동원(congruent circles)의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칼빈주의 신학자 니이버(R. Niebuhr)에 의하면 칼빈이 주장하는 교회와 국가는 상호 종속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성서와 자연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라는 공통의 구조에 속한다고 한다. 니이버의 이 말은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공통의 기원과 그리스도께 대한 공동의 피지배관계, 그리하여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칼빈의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개념과의 상응관계를 지시하여 준다.<sup>103)</sup>

#### 4. 은총론으로 이해

칼빈이 주장하는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시각은 소위 “Extra Calvinisticum”이라는 칼빈사교의 기본적인 틀로부터 출발하는 시각이 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사렛 예수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그분 밖에도 계시다는 역설적인 명제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셨으나 하늘을 버리시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태초에 행하시던 대로 항상 세상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칼빈의 이 역설적인 명제는 「기독교 강요」에서 발견되고 칼빈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였다.<sup>104)</sup>

102) 헤롤드 나이트, 「칼빈의 신학사상」, 290-291.

103) Inst, IV, 20, 3.

칼빈의 이러한 사고 구조는 칼빈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의 해명에  
 도 주요한 사고의 빛을 제공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안에 있는  
 두 은총, 즉 특수은총과 일반은총간의 역할관계로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sup>105)</sup> 칼빈의 이  
 와 같은 은총론적 구분은 인간에게 천상적인 것 뿐 아니라, 지상적  
 인 것과 현세적인 것도 용인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과학적인 면에서의 이성의 힘도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인간  
 은 과학도 인정하며 이런 맥락에서 그 자신이 배운 인문주의나 법  
 률학도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06)</sup>

칼빈주의 신학자 미이터 헨리(H. Henry. Meeter)도 칼빈의 주장  
 에 동의하면서 “교회의 기원은 중생과 특별은총에 둔다. 교회는 영  
 적인 일을 취급하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은총에 그 기원을 가지  
 고 현세적인 일들을 취급하며 그 목적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  
 는 일이다” 라고 구분하였다.<sup>107)</sup>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면 교회가 특수은총에, 국가가 일반은총에 각각 기원을 가지고 있  
 다고 해서 둘 사이가 구분되고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의 기관이다. 국가와 교회는 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  
 한다.<sup>108)</sup>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양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합심해야 한다. 국가는 복음

104) Inst, IV, 17, 2.

105) Inst, IV, 20, 4.

106)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박영남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110-111.

107) 미이터 헨리, 「칼빈주의」, 182-184.

108) Inst, IV, 20, 2.

전파에 직접적인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봉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와 교회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직, 간접으로 협력하며 결국은 한 왕국을 지향하여 나가야만 한다.<sup>109)</sup>

## V. 맺는 말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시대와 현장에 따라 변화되어왔고 각 시대마다 양자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전환되어져 왔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나라인 한 국가에 속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와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이 상과 같이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국가관을 조명해 보았다.

칼빈의 국가관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져야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이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독교 사회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의 국가이해는 인문주의와 루터의 이왕국론으로 대표되는 동

---

109) Inst, IV, 20, 3.

시대의 사상적 배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인문주의의 영향은 그의 회심을 전후하여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수사법과 고전에 대한 열정적인 연구, 자기훈련에 대한 관심과 도덕적 각성, 그리고 국가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하는 과정속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루터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 왕국론적 사상은 칼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일원론적 사상으로 통일되어진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세상의 통치를 주장하며 동시에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세속정부의 통치를 분리하지 않고 공동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신적 제도로서 각자가 부여받은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함으로 상호 협력과 봉사의 관계를 이루어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세상정부가 비록 선하지 않더라도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정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소명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이 적극적 소명의 자세는 역설적으로 악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정치사상은 제네바시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칼빈의 저서에 나타난 정치사상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비추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와 국가는 서로 책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교회와 국가 각자가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양자의 목적에 협력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공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교회와 국가는 공익사회 건설의 봉사자로서

그 시대에 알맞는 공동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셋째 교회와 국가는 각자 고유의 기능과 임무가 한정되어야 하며 양자에 대한 주권침해를 받지 않는 태도가 바람직한 관계이다. 교회와 국가는 양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신적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우위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칼빈의 국가관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두 기관이 각자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양자의 주권 침해 없이 서로에게 그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이원적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0.
- 김남식.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김명혁. 「현대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출판사, 1988.
- 김중기. 「신앙과 윤리」. 서울: 종로서적, 1986.
-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황성수. 「교회와 국가」. 서울: 신망애출판사, 1972.

### 2. 번역서적

- Abraham Kiper. 「칼빈주의」. 박영남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Calvin, John. 「영.한기독교 강요」(제4권). 김문제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1.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3-4권).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Donald K. McKim.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Gillian R. Evance 외 2인 공저. 「기독교 사상사」. 서영일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Harold Knight.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 학술연구원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2.
- Henly V. Till.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역, 서울: 영음사, 1972.
- Hugh T. Kerr. 「루터신학 개요」. 김영한편역, 서울: 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2-3권). 이형기, 차종순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 Meter Henly. 「칼빈주의」. 김진홍, 박윤선 공역, 서울: 성문사, 1959.
-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3. 외국서적

- Neve, J.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1 Philadelphia: Fortness Press, 1946.
- Niebuhr, Reinhold.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 Walker, Willisti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les Scribner's Sons, 1959.

### 4. 논문

- 김명혁. “교회의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 「교회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김성린. “교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논문 제6집, (1974).

김수읍. “칼빈의 정치사상과 그 경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김이봉. “칼빈의 교회와 국가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신복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제40권 2집, (1973).

이성철. “칼빈의 교회와 국가.”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77).

한철하. “칼빈의 정치론.” 「신학지남」 제29권 제1호, (1962).